

동학사에 불자·시민문화공간

계룡휴게소 자리에 불교문화원 건립



동학사 불교문화원 전경. 주변 자연환경과 잘 어우러져 불자와 지역민의 휴식공간으로도 각광받을 전망이다.

경전·한문·다도·꽃꽂이 교실 등

시민·단체에 개방 시설 무료대여

전통 비구니강원으로 역사가 깊은 충남 공주 동학사에 불자들과 시민들을 위한 문화공간이 마련됐다.

동학사(주지 일연)는 4월 24일 조계종 교육원장 무비스님과 백남훈 공주시장 등 사부대중 4백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동학사 불교문화원' 개원식을 가졌다. 불교문화원이 들어선 자리는 경내임에도 불구하고 오랫동안 계룡휴게소(음식점)가 운영돼 왔던 곳으로, 일연스님이 이곳 상인들을 설득해 불교문화원 건립이 이뤄졌다.

이번에 개원한 불교문화원은 계룡산을 찾는 시민과 불자들에게 다양한 불교문화를 체험케 함으로써 지역 포교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

인다. 또한 지역주민에게 무료로 개방될 예정이어서, 지역 문화공간으로서의 역할도 특목히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총 303평 규모의 불교문화원은 1층에 사무실과 영상실, 다도교실, 꽃꽂이교실, 2층에는 대법당과 도서관이 마련돼 있으며, 불교경전교실, 초·중생을 위한 한문교실, 꽃꽂이교실, 다도교실, 영상실, 문화원 법회, 여름불교학교 등의 프로그램이 운영된다.

불교경전교실은 매주 금요일 오후 2시 불자들과 일반인들을 대상으로 동학사 주지이자 동학사 승가대학 학장인 일연스님이 <금강경> <육조단

경> 등을 직접 강의하며, 매주 목요일 오후 2시에는 정강스님(경주 실례사)이 지도하는 꽃꽂이 교실과 허경란 교수(부산여대 겸임교수)가 지도하는 다도교실이 열린다. 이와 함께 초·중생을 대상으로 여름·겨울방학 기간동안 예절과 전통문화를 익힐 수 있는 한문교실이 동학사 승가대학 교수의 지도로 진행된다.

또 매주 토·일요일 오후 1시부터는 영상실을 개방하고 불교와 관련된 영상물을 상영한다. 불교문화원은 불교문화를 소재로 한 영화와 환경문지 등을 다룬 영상물을 준비해놓고 있다. 도서관은 불교관련서적과 일반서적을 갖추고 불자 및 시민들에게 항상 개방된다.

불교문화원은 불자들의 수행공간으로도 적극 활용된다. 매주 토요일 저녁부터 다음날 새벽까지 쉼이정인 하는 '문화원법회'가 열리며, 동학사 거사리불자 법회와 대전 운전불자 연합회 법회 등도 이곳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이밖에도 각종 수행단체를 비롯하여 일반 시민·사회단체에도 문호를 개방할 수 있도록 했다.

동학사 주지 일연스님은 "불교문화를 통해 삶의 질을 높이고, 자연과 어우러지면서 부처님 말씀을 배울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는 것이야말로 가장 큰 불사"라며 "불교문화원이 포교와 문화, 휴식공간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공주=한영우 기자 mwhan@buddhapa.com

베트남에 한국사찰 관음사 낙성법회

베트남 최초의 한국사찰 관음사(주지 정인)는 21일 베트남 호치민시에서 법당 낙성법회 및 봉축식을 봉행했다.

관음사 조실 정각스님, 교민불자 등 150여명이 동참한 이날 법회에서는 정각스님이 법문을 통해 "타국에서 겪는 어려움을 부처님의 지혜로 극복할 수 있도록 정진하는 불자가 되자"고 당부했다. 이날 낙성법회를 계기로 관음사는 경제사정이 어려운 교민 자녀들을 위한 교육 지원과 한국불교의 기본 교리와 수행 교육을 위한 초심자 교육 등에 주력할 방침이다.

천미희 기자

"불교학 발전위해 써달라" 80대 할머니 동국대에 13억

유언공증서 전달, "이름 절대 밝히지 말라"

4월 1일 이름을 밝히지 않은 노스님이 3억 원을 기증한 데 이어 역시 이름을 밝히지 않은 80대 할머니가 13억 원 상당의 재산을 "불교학 발전을 위해 써달라"며 동국대에 기증했다.

4월 24일 동국대에 따르면, 이 할머니는 23일 유언 집행 대리인과 송석구 총장을 찾아와 정기에금 10억 원과 3억 원 상당의 오기스텔을 사후에 기증하겠다는 '유언 공증서'를 전달했다.

이 할머니는 "불교학 발전을 위해 애쓰고 있는 교수들과 학생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됐으면 한다"며 "죽기 전까지는 절대 이름을 밝히지 말아 달라"고 당부했다고 동국대 측은 밝혔다. 목실한 불교신자로 한국전쟁 때 홀로 남함으로써 내러와 평생을 독신으로 산 할머니

는 부산에서 포복상 등을 하며 모은 전 재산을 내놓았다.

동국대 송석구 총장은 "불자들이 사찰 등의 불사를 위해서는 많은 시주금을 내지만 불교학 발전을 위해 거액을 희사한 경우는 근래 들어 처음으로 안다"고 말했다.

불교대학장 보광 스님은 "불교대학 발전을 위해 30억 원을 목표로 기금을 조성하고 있는 터에 이 같은 정재가 들어와 큰 힘을 얻게 됐다"며 "이 할머니의 법명을 따 영구히 기릴 수 있는 기금으로 만들겠다"고 밝혔다.

학교 측은 부속병원을 통해 건강검진은 물론 사후 장례와 49제 등을 치러줄 예정이다.

권형진 기자

주한 외국인대상 적극 포교

미8군·외국인 근로자들 대상

3일 저녁 한미연합사 법회 봉행

조계종 국제포교사회(회장 백원기)가 미8군 및 외국인노동자를 비롯한 국내외 외국인 포교에 적극 나선다.

국제포교사회는 4월 26일 동국대 학술문화관 그릴에서 가진 '국제포교사회 후원의 밤' 행사를 시작으로 국제포교사들의 해외포교와 국내 외국인 대상 포교활동을 조직적으로 벌여나갈 방침이다.

그동안 승산스님(화계사 조실) 등 몇몇 스님들이 개인적으로 해외포교를 벌여온 실정에서 국제포교사회는 미8군과 외국인 노동자 등 국내 외국인들을 대상으로 한 포교와 해외포교를 병행한다는 계획을 세워놓고 있다.

첫 행사로 5월 3일 오후 5시 30분 서울 용산 한미연합사 장교식당에서 미군 등 200명이 참석한 미8군 법회

를 갖기로 했다. 현각스님의 참선강의 등이 진행되는 이번 첫 법회를 계기로 국제포교사회는 3년 전에 문을 닫은 미8군법우회를 재조직, 본격적인 주한미군 포교에 나설 계획이다.

이와 함께 국제포교사회는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한국어 및 컴퓨터 교육과 후원 등 미안마, 스리랑카 등 외국인 노동자의 인권개선 및 유학 지원사업 등에도 적극 나설 방침이다.

백원기 회장은 "주한외교사절 초청법회 등도 실시해 국내 외국인 포교를 강화하면서 동시에 해외포교를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김재경 기자



4월 25일 조계사 대웅전에서 '이웃을 위한 희망의 등 밝히기' 선포식이 끝난 뒤, 행사 주관 단체와 사찰신도회 대표들이 '희망의 등'을 들고 있다. 오른쪽부터 백창기 중앙신도회장과 조계사 주지 지홍스님.

"이웃위해 희망의 등 밝히자" 선포식

조계종 중앙신도회와 본사가 공동 주최하는 '이웃을 위한 희망의 등 밝히기' 선포식이 4월 25일 조계사 대웅전에서 각 사찰 및 수행단체 대표 등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이날 선포식은 포교원장 도영스님의 격려사, 중앙신도회 백창기 회장의 인사말, 생명나눔실천회 손양호 상임이사의 동참문 낭독에 이어 이연숙 조계사 신도회장과 안승기 봉

은사 신도회장의 사례발표 등으로 진행됐다.

이 자리에서 조계종 포교원장 도영스님은 포교부장 상운스님이 대독한 격려사를 통해 "물질만능의 각박한 현실 속에서도 이웃을 위해 등을 밝히려는 마음이 세상도 환하게 밝혀줄 것"이라고 말했다. 김재경 기자

불교상담대학원 건립추진

상담개발원, 2년제로 하반기 설립준비위 구성

불교상담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2년제 정부인가 '불교상담대학원'이 설립 추진된다.

조계종포교원 불교상담개발원(원장 이근후, 이하 상담개발원)은 4월 20일 구미 금오중합사회복지관에서 2년제 정규대학원인 '불교상담대학원' 설립을 위한 1차 준비 간담회를 갖고, 올 하반기에 설립준비위원회를 구성해 본격적으로 추진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서 이근후 원장은

"전국 각 사찰별 자원봉사 수준의 불교 상담인력을 좀더 전문화시킬 수 있는 교육기관이 절실히 필요하다"며 "불교 자체가 상담이라고 할 수 있는 만큼 교계 차원의 관심이 요구된다"고 말했다. 김철우 기자

수유종합복지관 준공 이통한 코오롱명예회장 기증

사회복지법인 은가사(이사장 수혜)는 5월 3일 오전 11시 서울 수유2동에

서 수유종합복지관 준공식을 갖는다. 이번엔 준공된 수유종합복지관은 코오롱 그룹 이통한 명예회장이 건립해 기증한 것으로, 이 명예회장은 10년 전 12억 규모의 길음복지관을 건립해 기증한 바 있다.

수유종합복지관은 지하1층 지상5층, 건평 573평 규모로 1층 구립 어린이 집을 비롯해, 저소득 지원 재가복지봉사센터, 치매노인주간보호소 등이 들어서게 되고, 일반 지역주민 각종 사회교육 프로그램 등을 운영한다.

이에 따라 강북구 수유동 일대 10만여 주민은 물론, 저소득 밀집지역 주민들이 혜택을 받을 전망이다. (02)985-0161 김철우 기자

광륵사 개원법회

청화스님, 시민선방 지도

서울 도봉산 입구에 위치한 광륵사가 5일 오후 1시 개원법회를 개최한다.

조계종 원로의원 청화스님이 대중들과 함께 수행할 수 있는 원통법당으로 문을 여는 광륵사(주지 대천)는 청화스님 법문과 함께 법회 및 불교현안 4중주 공연 등 개원기념 행사도 갖는다. 또 일반인과 불자들이 마음껏 수행할 수 있는 시민선방을 개원한다. 시민선방은 04시, 08시, 14시, 19시 등 4차례 2시간씩 정진할 수 있다.

한편 광륵사는 불교 교리, 수행, 교양, 불교문화, 비교종교, 사회복지, 인본주의 등의 내용을 담은 4×6판, 발행면수 160쪽 분량의 계간 '광륵' 지도 개원일에 맞춰 발행할 예정이다. (02)954-5849. 김원우 기자

봉축용 기념소책자

'부처님 오신날' 인기

부처님 오신날을 맞아 설립연구원이 제작한 봉축행사 겸 기념소책자 <부처님 오신날>이 인기를 끌고 있다.

4×6배판과 4×6판 두 종류로 발간된 <부처님 오신날>은 청보리회 김재영 법사와 정토회 보수 법사가 각각 집필했다.

4×6배판 <부처님 오신날>은 부처님과 가족들이 함께 대화를 나누는 독특한 형식으로 △왜 연등을 밝히나 △부처님은 무엇을 깨달았나 △왜 하늘과 땅 위에 나홀로 존귀하나 △불행과 고통은 어디서 오나 등의 이야기를 전개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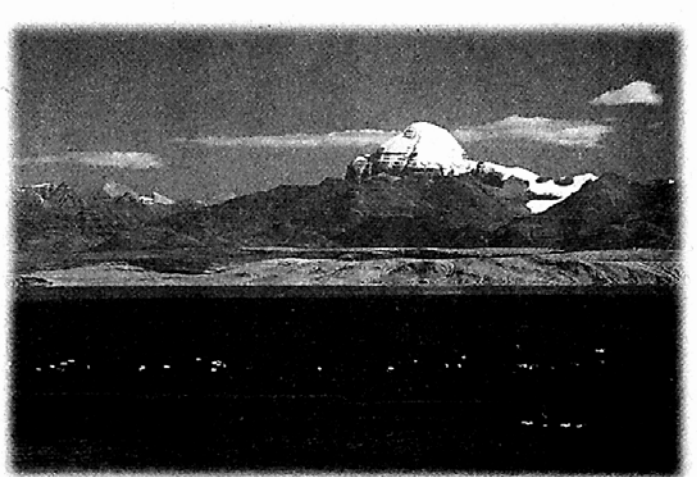
4×6판 <부처님 오신날>은 부처님 탄생에서 열반까지 일대기와 관불의식, 불탑 예배의 공덕 등을 핵심만 간추렸다. (02)720-0824 박봉명 기자

극락불토 수미산 영가 천도제 참가단 모집

철마년이란?

12년에 한번 돌아오는 업장소멸의 해로 올해가 철마년(鐵馬年)입니다.

이 해에 수미산에서 수행을 하면 업장이 소멸됨과 함께 12년의 공덕을 얻는다 하여 지금 수미산은 대만, 일본, 태국등 세계 각국에서 온 불교신자들로 붐빕니다.



행사 일정 (본 행사는 수미산 행사 외 티벳, 네팔 순례를 겸합니다)

- 5월 28일 오후 7시 경 인천공항 집결-중국 성도 도착
- 5월 29일 성도 - 티벳, 라싸 포탈라, 칠방사 순례
- 5월 30일 라싸, 장제, 사기세 공불, 백담사 순례
- 5월 31일 티쉬루포 순례, 라체로 이동
- 6월 1일 라체, 사기순례
- 6월 2일 사기 수미산 입구 파양 순례
- 6월 3일 수미산 순례
- 6월 4일 수미산 영가천도제, 성호 미나시로바 순례
- 6월 5일 수미산 개별 자유 수행 순례
- 6월 6일 사기, 장무 도착
- 6월 7일 장무, 코다리사원 순례, 네팔 카트만두
- 6월 8일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네팔 몽키템플, 보디나드, 빅타폴 순례
- 6월 9일 카트만두, 상해 거쳐 아시아나 항공으로 오전 11시경 인천 도착(12박 13일)

• 참가대상: 본 행사는 스님 외 숙인은 참가할 수 없습니다. (스님이 인솔하는 숙인은 가능합니다)

• 참가비용: 275만원(현지 추가비용은 없습니다)

• 참가문의: (02)722-8121~5 팩스(02)734-3565 (자세한 내용을 받아 보실 수 있습니다)

• 접수마감: 5월 18일(토요일)

*본 행사에 참가하기 어려우신 스님들께서는 하인거 직후의 2차행사를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주최·철마년(鐵馬年) 맞이 수미산 영가천도제 준비위원회

- ☐ 천도제집전·대운사(大雲寺)주지 지공스님 및 순례참여 주지스님 동참 (영가천도를 원하시는 스님들은 영가를 준비하신 후 동참하시면 됩니다)
- ☐ 주관·천도제 준비위원회, 세계일류여행사(문화관광부 주최 한국여행상품전 '금강' 수상, 2001년 티벳 순례 1위 여행사), 中國城都여행사, 티벳과학기술여행사, 네팔카트만두에코여행사